

관음종 올해사업 발표

美서 세계평화기원법회

中·러·미얀마 등과 문화교류·지원
종무행정 전산화·사이버 포교 진력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사진)은 올해 해외포교에 전력을 쏟는다. 관음종은 3월 8일부터 2박3일간 미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샌디아고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및 영산제'를 봉행한다. 9·11 테러 및 이라크 전쟁에서 순직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천도제 형식으로 봉행되는 이번 법회에서는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법문과 영산제 공연이 진행된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회생자 유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러시아 카르미카공화국 불교계와의 불교문화 교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불사가 완공된 중국 장안사의 정부 승인을 상반기 중으로 마쳐 중국 교포들이 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미안마교류협의회를 통해 미얀마 양곤에 기술학교를 세워 미얀마 불자 청소년들이 직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종무행정의 전산화와 사이버 포교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총무원과 전국 관음종 사찰들간의 종무행정을 네트워킹한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에는 생활속에서 유익하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문과 교리를 대폭 실어 사이버상에서 종도들이 종단의 방침과 교육

체계를 유기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에는 총본산내에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훈선 스님의 부모탑을 건립한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의정부 소재 홍법사 서울의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전문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극 협조하되, 사찰 본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이전 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교육분야에서는 종단내 교육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홍보분야에서도 7년전 중단됐던 관음종 신문의 재발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찬불가 노래방 기기 군법당에 첫 보급



찬불가를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방 기기가 국내 최초로 군법당에 보급된다. 이에 따라 불자장병들이 여가시간에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찬불가까지 배우게 돼 군생활이 한층 활기차고 찬불가의 대중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전달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재)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와 (주)금영 대표이사 김승영은 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식'을 갖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노래방기기 6대를 보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엘프, 스피커 등 주변기기가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기기로서 이동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회시나 부대 위문 등에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군법사가 활동한 지 40년이 돼지만 군종특별교구는 지난해 7월 설립되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며 "보덕학회, 금영, 풍경소리, 현대불교신문사가 좋은 인연을 지어주었으니 더 분발해서 군 포교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는 보덕학회에서 전액 지원했다.

1993년 설립된 보덕학회는 불광사 광덕 스님이 이들을 지어줄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고 그동안 어린이 포교, 문서 포교, 청소년 포교 등에 후원을 주로 해왔다. 정기지지는 않았지만 군법당 위문 등도 꾸준히 해온 보덕학회는 향후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이 보덕학회 류홍우 이사장으로부터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재)보덕학회 전액 지원 6대 보시

(주)금영 노래방 기기에 찬불가 삽입

좋은벗 풍경소리 프로그램 제작 도와

필zell 계획이다.

보덕학회 이사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은 "그동안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에 후원했지만 이사장이 직접 나오신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군포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후원을 약속했다.

노래방기기에 찬불가를 삽입하는 일은 금영이 맡았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창작 찬불가와 법회 의식곡 등 120여곡을 선정해 노래방 프로그램에 삽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음원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찬불가 노래방기기에 처음으로 120여곡의 찬불가를 삽입했으며 향후 전국 군법당에 모두 찬불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환 금영 음향연구소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찬불가를 지속적으로 디지털 음원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향후 노래방기기 업데이트를 통해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영의 노래방기기에 찬불가가 삽입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벗 풍경소리의 역할이 컸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노래방기기에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금영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21집의 앨범을 발매하며 500여곡의 찬불가를 창작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이번에 전달받은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2월 말 군종법사의 활동이 가장 열악한 연대 법당인 강원도 지어 2사단 청호정사, 7사단 연승사, 12사단 함포암, 15사단 보현사, 21사단 장안사, 27사 관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연대급 군법사 제작 부대, 격오지, 교육부대, 일반부대 순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부주지 계성 스님을 비롯해 현대불교신문사 위영만 국장, 교구 임원 현직 군법사 10여명과 보덕학회 이사장 류홍우, 불이회 윤용숙 명예회장, 금영 음향연구소 김명환 소장,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 등이 동참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서는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향후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김두비 기자 doobi@buddhapia.com

미타종 2대 종정에 혜우 스님

"수행·포교에 전념...소외이웃과 함께 하자"

대한불교 미타종은 1월 21일 총무원에서 미타종 유지재단 이사회를 갖고 제 2대 종정으로 혜우 스님(광주 해룡사 주지·사진)을 추대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종정에 추대된 혜우 스님은 종정 수락인사에서 "승, 속이 본분을 지켜 수행 포교에 전념할 때 미타종은 한국불교에 우뚝서는 종단이 될 것이다"며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자"고 말했다.

혜우 스님 종정 추대식은 3월경 열린다. 부산 백양사, 광주 천지사를 창건했으며 미타종 감찰원장, 중앙종회의장을 거쳐 1999년 미타종 부종정으로 추대. 1996년 광주 해룡사를 창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연합종교신문사 사장 역임. 부산 백양사, 광주 천지사를 창건했으며 미타종 감찰원장, 중앙종회의장을 거쳐 1999년 미타종 부종정으로 추대. 1996년 광주 해룡사를 창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가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불자 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만사형통의 영험!

점안불공과축원불공마치고 출시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밝게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중생의 무병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과 고뇌를 단념시키고, 재산을 잃어대, 화를미리막고, 모든일을 성취시켜 주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 전승공예 대전(불화)대통령상,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수월관음도는 100%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 와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를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게 특별제작했으며 영험의 고려 불화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하나라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최고급 2단 들뜸표구 제작과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표구 뒷면에는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와 후손에게 가보로 물려주는 소장인관도 들어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리며 삼배한 후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전화(02)735-6923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높이 88cm, 폭58cm

평생부자 관세음영험 福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60년만에 온 범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은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일때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손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패된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은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과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범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홈 벨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게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홈**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뤄지는 진리의 뜻을 담은 벨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홈자동 벨트**는 벨트에서 원적외선과 멜토네너지가 발생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벨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